

해 외 직 접 투 자 동 향 분 석 (2012년 4/4분기)

2013. 2. 8.

해 외 경 제 연 구 소 산 업 투 자 조 사 실

해 외 투 자 분 석 팀

목 차

요 약	Ⅱ
Ⅰ. 개 요	1
Ⅱ. 지역별 동향	2
Ⅲ. 업종별 동향	6
Ⅳ.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	9
Ⅴ. 기 타	10

< 요약 >

□ 2012. 4/4분기 총 해외직접투자(실행기준)는 전년동기 대비 19.9% 감소, 전분기 대비 4.4% 감소한 55.6억 달러 시현

- 지역별로는 아시아, 북미와 중남미, 업종별로는 광업, 제조업과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심 투자

【 지역별 】

□ 주요 지역 중 아시아, 북미와 유럽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, 중남미는 소폭 증가세

- 중남미는 광업을 중심으로 3.9%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, 아시아 -8.1%, 북미 -31.8%, 유럽 -56.7%, 대양주 -17.8% 감소, 기타 중동과 아프리카는 각각 30.9%, 17.9%의 증가율 기록

※ 아시아(27.3억 달러), 북미(11.9억 달러), 중남미(6.5억 달러), 유럽(4.4억 달러)

【 업종별 】

□ 주요 업종인 광업과 제조업이 감소세를 보이는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감소세인 가운데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은 증가

- 광업과 제조업 투자는 각각 -10.8%, -23.1% 감소하였으며, 비중은 각각 32.5%, 28.0%임
- 광업은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(12.4억 달러)가 전년동기 대비 21.1% 소폭 증가

※ 광업(18.0억 달러), 제조업(15.5억 달러)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7.5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3.4억 달러)

【 투자기업규모별 】

□ 전년동기 대비 대기업 투자비중 증가세

- 대기업의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19.5% 감소에도 불구하고, 전체 투자금액의 감소로 그 비중이 전년동기 81.8%에서 82.2%로 소폭 증가

【 투자규모별/지분율별 】

□ 1억 달러 초과 대규모 투자비중 전년동기 대비 감소

- 금분기 1억 달러 초과 대규모 투자비중은 전체의 36.8%를 차지하여 전년동기(39.4%) 대비 감소

□ 지분율 100%인 투자금액 비중 전년동기 대비 증가

- 한국측 지분율이 100%인 투자금액의 비중은 전년동기 71.8%에서 금분기 77.6%로 대폭 증가

I. 개 요

- 2012. 4/4분기 중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동기 69.4억 달러 대비 19.9% 감소, 전분기 58.1억 달러 대비 4.4% 감소한 55.6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전년동기의 609개에서 6.6% 감소, 전분기의 666개에서 14.6% 감소한 569개를 시현
- 지역별로는 전년동기 대비 아시아와 북미가 각각 8.1%, 31.8% 감소한 반면, 중남미는 3.9%의 증가율을 보였으며, 주요 업종별로는 광업과 제조업이 각각 -10.8%, -23.1%의 감소 기록

<표 1>

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1		2012		2011. 4/4		2012. 3/4		2012. 4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전체 (증가율)	26,495 8.7%	2,761 -4.4%	23,164 -12.6%	2,470 -10.5%	6,941 -33.6%	609 -18.7%	5,811 -16.9%	666 -3.5%	5,558 -19.9%	569 -6.6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- 금분기 지역별 투자비중은 아시아(49.1%), 북미(21.5%), 중남미(11.7%), 유럽(8.0%), 대양주(5.8%) 순이며, 업종별은 광업(32.5%), 제조업(28.0%)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13.5%) 순

<그림 1>

최근 5분기 해외직접투자 추이 (실행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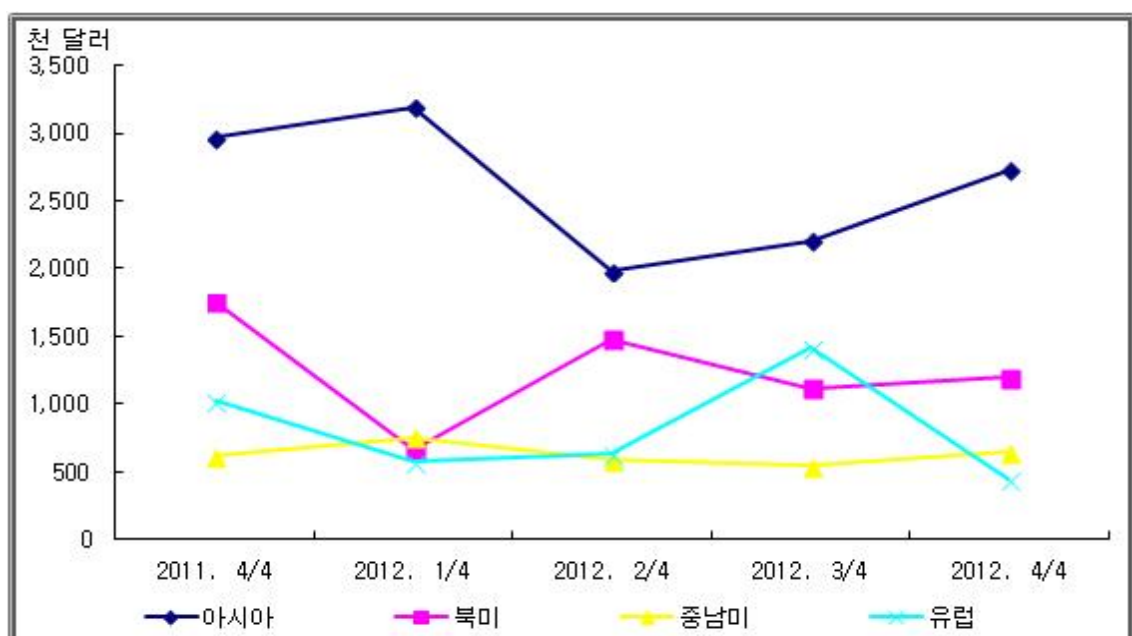
- ※ 금분기 투자 상위 국가(억 달러) :
미국(10.2), 중국(9.3), 홍콩(5.5), 호주(3.1), 베트남(3.1)
- ※ 금분기 투자 상위 투자자(억 달러) :
A사 (5.2), B사 (4.3), C사 (3.6), D사 (3.2), E사 (2.5)
- ※ 금분기 투자 상위 현지법인(억 달러) :
E사 중국 현지법인 (2.5)
D사 미국 현지법인 (2.4)
A사 호주 현지법인 (2.1)
B사 아일랜드 현지법인 (2.0)
F사 홍콩 현지법인 (1.8)

II. 지역별 동향

1. 개관

-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시아, 북미와 유럽이 전년동기 대비 -8.1%, -31.8%, -56.7%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, 중남미는 3.9% 증가

<그림 2> 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- 지역별 투자비중은 아시아 49.1%, 북미 21.5%, 중남미 11.7% 순이며, 상위 3개 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의 82.3% 차지
 - 전년 동기의 경우 아시아, 북미, 유럽 3개 지역이 각각 42.8%, 25.2%, 14.8%의 투자비중을 보이며 전체의 82.8% 차지
- 국가별로 아시아에서는 중국(9.3억 달러), 홍콩(5.5억 달러), 유럽은 아일랜드(2.0억 달러), 중남미는 멕시코(1.8억 달러)에서 두드러진 투자 실현
- 업종별로 아시아는 제조업(12.0억 달러)과 광업(4.3억 달러), 유럽은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2.0억 달러)과 제조업(1.0억 달러), 중남미는 광업(1.9억 달러)과 금융 및 보험업(1.6억 달러) 중심으로 투자

<표 2>

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0		2011		2012		2011. 4/4		2012. 4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아시아	10,066	1,934	11,080	1,859	10,113	1,677	2,972	423	2,730	390
(비중)	41.3%	67.0%	41.8%	67.3%	43.7%	67.9%	42.8%	69.5%	49.1%	68.5%
(증감율)	48.7%	22.4%	10.1%	-3.9%	-8.7%	-9.8%	-23.9%	-15.2%	-8.1%	-7.8%
북미	4,624	552	7,266	468	4,045	469	1,750	92	1,194	103
(비중)	19.0%	19.1%	27.4%	17.0%	19.2%	19.0%	25.2%	15.1%	21.5%	18.1%
(증감율)	-22.9%	3.0%	57.1%	-15.2%	-38.8%	0.2%	-8.3%	-39.1%	-31.8%	12.0%
중남미	2,137	94	2,340	110	2,534	92	623	20	648	26
(비중)	8.8%	3.3%	8.8%	4.0%	10.9%	3.7%	9.0%	3.3%	11.7%	4.6%
(증감율)	105.3%	5.6%	9.5%	17.0%	8.3%	-16.4%	-45.3%	-4.8%	3.9%	30.0%
유럽	6,121	154	3,650	155	3,070	122	1,026	37	444	34
(비중)	25.1%	5.3%	13.8%	5.6%	13.3%	4.9%	14.8%	6.1%	8.0%	6.0%
(증감율)	14.9%	17.6%	-40.4%	0.6%	-15.9%	-21.3%	-65.6%	0.0%	-56.7%	-8.1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2. 지역별 동향

가. 아시아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8.1% 감소한 27.3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7.8% 감소한 390개 기록
- 국가별로는 중국(9.3억 달러, 비중 34.2%), 홍콩(5.5억 달러), 베트남(3.1억 달러), 말레이시아(2.9억 달러), 인도네시아(2.0억 달러) 순
 - 아시아 투자액 중 중국 투자비중 : '09년 32.2%, '10년 36.1%, '11년 33.2%, '12. 2/4분기 30.1%, '12. 3/4분기 38.1%

- 업종별로 제조업(12.0억 달러, 비중 44.0%), 광업(4.3억 달러)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3.2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2.5억 달러)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(1.6억 달러) 순
- 아시아 투자액 중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40.6%, '10년 53.3%, '11년 52.4%, '12. 2/4분기 44.5%, '12. 3/4분기 44.5%
- 주요 투자 사업
 - E사의 중국 제조업 투자 : 2.5억 달러
 - F사의 홍콩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투자 : 1.8억 달러
 - G사의 말레이시아 광업 투자 : 1.5억 달러

나. 북미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31.8% 감소한 11.9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12.0% 증가한 103개 기록
- 국가별로는 미국(10.2억 달러), 캐나다(1.8억 달러)
- 업종별로는 광업(6.7억 달러, 비중 55.8%)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2.1억 달러, 비중 17.9%), 제조업(1.0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0.6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0.5억 달러) 순으로 투자
 - 북미 광업 투자비중 : '09년 50.3%, '10년 28.2%, '11년 43.9%, '12. 2/4분기 61.7%, '12. 3/4분기 34.7%
 - 북미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투자비중 : '09년 10.8%, '10년 6.0%, '11년 4.7%, '12. 2/4분기 2.1%, '12. 3/4분기 10.8%
- 주요 투자 사업
 - D사의 미국 광업 투자 : 2.4억 달러
 - B사의 미국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투자 : 1.9억 달러
 - C사의 캐나다 광업 투자 : 0.8억 달러

다. 유럽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56.7% 감소한 4.4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8.1% 감소한 34개 기록
- 국가별로는 아일랜드(2.0억 달러), 네덜란드(0.7억 달러), 영국(0.5억 달러), 노르웨이와 러시아(각각 0.3억 달러) 순으로 투자

- 업종별로는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2.0억 달러, 비중 45.8%), 제조업(1.0억 달러, 비중 22.9%), 광업(0.6억 달러)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(0.5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0.1억 달러) 순으로 투자
 - 유럽지역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투자비중 : '09년 19.0%, '10년 5.3%, '11년 13.7%, '12년 2/4분기 17.8%, '12년 3/4분기 58.8%
 - 유럽지역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17.0%, '10년 13.3%, '11년 16.7%, '12년 2/4분기 12.6%, '12년 3/4분기 25.0%
- 주요 투자 사업
 - B사의 아일랜드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투자 : 2.0억 달러
 - A사의 영국 광업 투자 : 0.4억 달러
 - H사의 네덜란드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 투자 : 0.3억 달러

라. 중남미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3.9% 증가한 6.5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30.0% 증가한 26개 기록
- 국가별로는 멕시코(1.8억 달러), 케이만군도(1.7억 달러), 브라질(1.0억 달러) 순으로, 업종별로는 광업(1.9억 달러, 비중 29.9%), 금융 및 보험업(1.6억 달러) 순
 - 유럽지역 광업 투자비중 : '09년 15.6%, '10년 40.6%, '11년 13.8%, '12년 2/4분기 14.8%, '12년 3/4분기 15.4%
- 주요 투자 사업
 - C사의 멕시코 광업 투자 : 1.7억 달러
 - I사의 케이만군도 금융 및 보험업 투자 : 1.1억 달러
 - J사의 브라질 제조업 투자 : 0.2억 달러

마. 기타

- 전년동기 대비 중동 30.9%, 아프리카는 17.9%의 증가세 대양주 -17.8%의 감소세 시현
- 주요 투자 사업
 - A사의 호주 광업 투자 : 2.1억 달러
 - C사의 마다가스카르 광업 투자 : 0.8억 달러
 - K사의 호주 광업 투자 : 0.4억 달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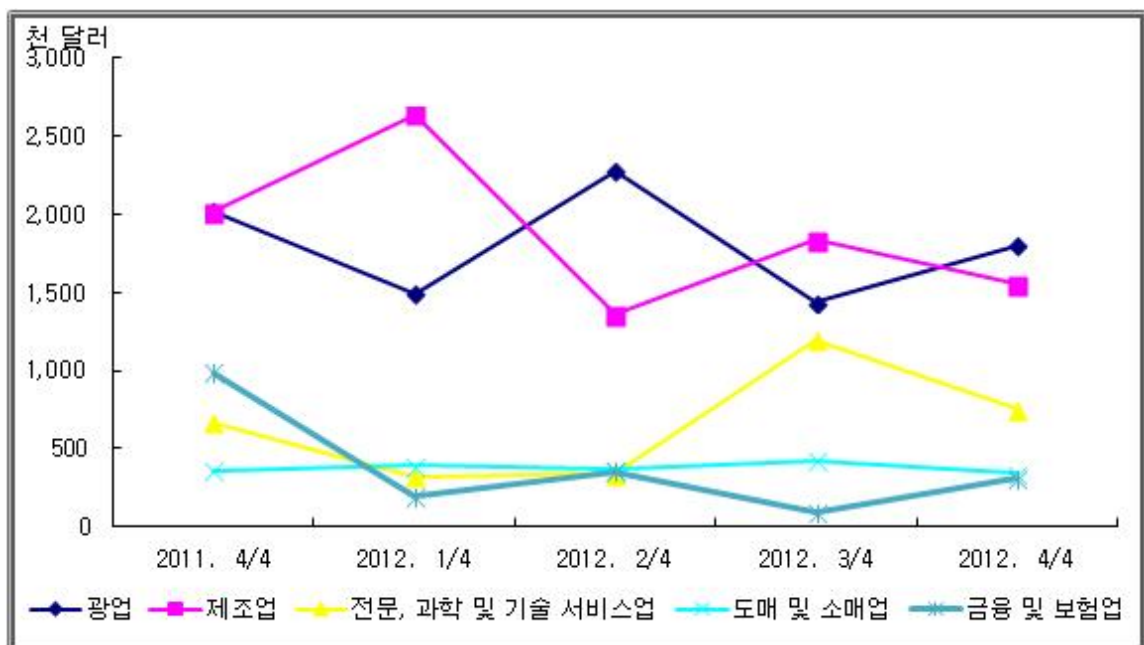
Ⅲ. 업종별 동향

1. 개관

- 전년동기 대비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 77.5%, 부동산업 및 임대업 70.2%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.3% 증가, 운수업 -80.9%, 금융 및 보험업 -68.7%, 건설업 -25.7%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-43.4% 등은 감소

<그림 3>

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- 주요 업종별 투자비중은 광업이 가장 큰 비중인 32.5%, 제조업 28.0%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3.5%, 도매 및 소매업 6.1%, 금융 및 보험업 5.5% 순
 - 광업은 미국(5.2억 달러), 호주(3.1억 달러), 말레이시아(2.8억 달러), 멕시코(1.7억 달러), 캐나다(1.5억 달러) 순, 제조업은 중국(8.3억 달러), 베트남(1.5억 달러), 미국(1.0억 달러), 브라질(0.9억 달러), 인도네시아(0.8억 달러) 순
 - 광업 투자비중 : '09년 26.8%, '10년 30.1%, '11년 28.6%, '12년 2/4분기 40.1%, '12년 3/4분기 24.6%
 -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22.4%, '10년 28.8%, '11년 30.9%, '12년 2/4분기 24.0%, '12년 3/4분기 31.6%

<표 3>

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0		2011		2012		2011. 4/4		2012. 4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광업	7,326	54	7,579	48	6,993	40	2,022	14	1,804	8
(비중)	30.1%	1.9%	28.6%	1.7%	30.2%	1.6%	29.1%	2.3%	32.5%	1.4%
(증가율)	34.4%	-19.4%	3.5%	-11.1%	-7.7%	-16.7%	-47.0%	-17.6%	-10.8%	-42.9%
제조업	7,021	1,120	8,195	1,065	7,388	875	2,021	231	1,554	191
(비중)	28.8%	38.8%	30.9%	38.6%	31.9%	35.4%	29.1%	37.9%	28.0%	33.6%
(증가율)	53.8%	32.1%	16.7%	-4.9%	-9.8%	-17.8%	-28.5%	-21.7%	-23.1%	-17.3%
천연가스 및 석탄 채취업	1,713	145	2,333	146	2,601	138	664	30	752	34
(비중)	7.0%	5.0%	8.8%	5.3%	11.2%	5.6%	9.6%	4.9%	13.5%	6.0%
(증가율)	-15.6%	9.8%	36.2%	0.7%	11.5%	-5.5%	-11.3%	3.4%	13.3%	13.3%
도매 및 소매업	1,305	680	1,892	616	1,519	594	357	125	338	149
(비중)	5.4%	23.6%	7.1%	22.3%	6.6%	24.0%	5.1%	20.5%	6.1%	26.2%
(증가율)	-27.3%	29.0%	45.0%	-9.4%	-19.7%	-3.6%	-9.8%	-37.8%	-5.2%	19.2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2. 광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18.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.8% 감소, 신규법인수는 42.9% 감소한 8개 기록
 - 에너지 공기업 투자는 12.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1.1% 증가
- 국가별로는 미국(5.2억 달러), 호주(3.1억 달러), 말레이시아(2.8억 달러), 멕시코(1.7억 달러), 캐나다(1.5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지역별로 북미 및 아시아 지역 투자비중이 각각 37.0%, 23.7% 차지
 - 북미 지역 투자비중 : '09년 55.3%, '10년 17.8%, '11년 42.1%, '12년 2/4분기 40.2%, '12년 3/4분기 27.1%
 - 아시아 지역 투자비중 : '09년 16.3%, '10년 16.0%, '11년 12.4%, '12년 2/4분기 14.1%, '12년 3/4분기 28.4%
- 신규법인수 비중(1.4%)에 비해 투자금액 비중(32.5%)이 상대적으로 큰 바, 법인당 투자규모가 업종 평균 대비 대규모
- 세부 업종별로는 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(15.6억 달러) 투자비중이 86.3%, 금속 광업(1.7억 달러)이 9.3% 차지

3. 제조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15.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3.1% 감소, 신규법인수는 17.3% 감소한 191개 기록

- 1차금속 제조업(1.1억 달러)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0.8억 달러) 투자 감소(전년동기 대비 각각 79.0%, 28.9%)가 주요인
- 국가별로 중국(8.3억 달러), 베트남(1.5억 달러), 미국(1.0억 달러), 브라질(0.9억 달러), 인도네시아(0.8억 달러) 순으로, 아시아(12.0억 달러)와 중남미(1.3억 달러) 지역이 각각 77.3%, 8.3% 차지
- 제조업 총투자액 대비 아시아 지역 투자비중 : '09년 60.2%, '10년 76.4%, '11년 70.8%, '12년 2/4분기 65.1%, '12년 3/4분기 53.4%
- 제조업 총투자액 대비 중남미 지역 투자비중 : '09년 2.3%, '10년 3.8%, '11년 12.9%, '12년 2/4분기 15.6%, '12년 3/4분기 6.1%
- 투자금액 비중은 28.0%, 신규법인수 비중은 33.6%로, 법인당 투자금액이 업종 평균치에 가까움
- 세부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.8억 달러),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3.8억 달러), 1차 금속 제조업(1.1억 달러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0.8억 달러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0.8억 달러)의 순

4. 도매 및 소매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3.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.2% 감소, 신규법인수는 19.2% 증가한 149개 기록
- 국가별로는 싱가포르(0.8억 달러), 미국(0.5억 달러) 순이며 투자비중은 각각 23.7%, 15.7%
- 세부업종별로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(2.6억 달러), 소매업(0.7억 달러) 순

5. 금융 및 보험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3.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8.7% 감소, 신규법인수는 증감 없는 14개 기록
- 지역별로는 중남미(1.6억 달러), 아시아(0.8억 달러), 북미(0.6억 달러) 순으로 투자

IV.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

1. 개관

- 금분기 중 대기업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19.5% 감소에도 불구하고, 전체 투자금액 감소로 비중이 81.8%에서 82.2%로 확대, 중소기업 투자는 1.5% 감소하였으나 비중은 16.0%로 증대

<표 4>

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*	2010		2011		2012		2011. 4/4		2012. 4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대기업	20,210	382	21,178	371	19,029	310	5,676	108	4,568	65
(비중)	82.9%	13.2%	79.9%	13.4%	82.1%	-9.8%	81.8%	17.7%	82.2%	11.4%
(증가율)	20.7%	35.9%	4.8%	-2.9%	-10.1%	-16.4%	-38.2%	-3.6%	-19.5%	-39.8%
중소기업	3,662	1,352	4,329	1,310	3,604	1,141	900	280	887	259
(비중)	15.0%	46.8%	16.3%	47.4%	15.6%	-8.2%	13.0%	46.0%	16.0%	45.5%
(증가율)	10.2%	14.0%	18.2%	-3.1%	-16.8%	-12.9%	-17.2%	-17.4%	-1.5%	-7.5%

* 개인 및 개인기업 등 제외

- 대기업의 신규법인수 비중은 11.4%에 불과하나, 대기업의 신규법인수 대비 투자금액(0.7억 달러)이 중소기업(3.4백만 달러) 대비 20.5배

2. 대기업

- 업종별로는 광업(17.8억 달러, 비중 39.0%), 제조업(10.7억 달러)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7.3억 달러) 순
 - 대기업의 광업 투자비중 : '09년 31.4%, '10년 35.6%, '11년 32.5%, '12년 2/4분기 48.3%, '12년 3/4분기 28.6%
- 지역별로는 아시아(21.3억 달러), 북미(10.5억 달러), 중남미(4.9억 달러) 순

3. 중소기업

- 업종별로는 제조업(4.4억 달러, 비중 49.7%), 부동산 및 임대업(1.3억 달러) 순
 - 중소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44.1%, '10년 51.7%, '11년 50.7%, '12년 2/4분기 40.8%, '12년 3/4분기 55.9%
- 지역별로는 아시아(5.5억 달러), 중남미(1.6억 달러) 순

V. 기 타

1. 투자규모별

<표 5>

투자규모별 해외직접투자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0		2011		2012		2011. 4/4		2012. 4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50만달러 이하	592	2,184	592	2,184	518	1,907	204	486	182	474
~200만달러 이하	1,073	382	1,073	382	946	311	322	65	307	59
~500만달러 이하	1,386	140	1,386	140	1,236	105	501	21	450	14
~1000만달러 이하	1,380	73	1,380	73	1,525	58	605	15	386	4
~5000만달러 이하	4,353	77	4,353	77	4,546	63	1,451	12	1,620	16
1억달러 이하	2,399	13	2,399	13	3,044	11	1,105	4	561	2
1억달러 초과	13,183	18	13,183	18	11,348	15	2,753	6	2,052	0

- 건당 투자규모 1천만 달러 초과~1억 달러 이하 투자 비중이 전년동기 36.8%에서 금분기 39.2%로 증가, 1억 달러 초과 투자 비중은 39.4%에서 36.8%로 소폭 감소

2. 지분율별

- 한국측 지분율 100% 투자 비중은 전년동기 71.8%에서 금분기 77.6%로 대폭 증가

<표 6>

지분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0		2011		2012		2011. 4/4		2012. 4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10% 미만	306	17	192	14	247	11	52	2	54	2
~ 50% 미만	2,912	394	2,870	361	2,294	269	1,040	93	511	63
50%	189	103	685	96	687	97	85	19	248	16
~ 100% 미만	3,634	253	3,329	230	2,428	195	783	58	430	48
100%	17,325	2,120	19,419	2,060	17,508	1,898	4,981	437	4,314	440